

참여연구원 칼럼

북한연구의 방법으로서의 마음적 전환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의 접촉지대 연구에서 발견한 북한적 마음체계는, 은유적으로 '마음의 지질학'(geology of mind)이라 부를 정도의 모습이다.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는, 기저에 한반도라는 지리적 조건들-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조건들-에 기초한 한(韓) 민족의 마음과 그 위에 각기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지는 분단/사회주의 마음,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 그리고 개별 사건들과 인간들의 마음 등이 퇴적된 중층적 형태를 띠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층구조는, 프랑스의 아날학파(Annales)가 제시한 세 가지 역사학의 시간개념-장기지속(longue durée), 주기적 국면(conjoncture), 개별적 사건-과 그 시간구분에 기초하여 개념화한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인 '집단심성'(mentalité)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의 마음체계에 적용해 본다면, 한민족의 마음은 장기지속적 시간을, 분단/사회주의 마음과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은 국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사적 시간을, 북한주민이나 탈북민의 마음은 각각 개별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집단심성은 이 시간들과 접촉하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형성된다.

우리는 이 집단심성을 마음체계란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한민족의 고유어인 '마음'을 연구의 주제로 선호하는 이유는, 마음의 고어로 알려진 '무슴'이 '마중'이나 '맞이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성격이나 품성과 같은 단어의 동의어로 마음이 사용될 때 무관계적으로 보이는 마음조차 자아 내부의 산물이지만 자아의 외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의 한 구성요소가 외부의 타자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self)과 타자(other)의 경계를 긋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 이 경계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정체성(identity)을 생산한다.

남북한 간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

접촉지대에서 북한적 마음체계의 접합과 탈구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공간적 효과'(spatial effects), '사회관계', '자원의 분포'의 조합으로 정리된다.

공간적 효과는 공간이 사회관계를 담는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국내에서 참여하는 접촉지대에서 탈북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그러나 탈북자가 해외에서 남한사람과 만나는 접촉지대에서는 탈북자와 남한사람 모두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즉 탈북이란 몸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를 호명하는 마

음체계는 공간적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의 차이가 사회관계를 상이하게 주도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접촉지대인 개성공단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는 공여자와 수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남북회담에서는 특수관계와 국제관계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이란 고정된 영토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공간변화에 따라 다른 마음체계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접촉지대의 사회관계는 자원의 분포에 따라 그 성격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사회관계의 관념적 형태인 마음체계들의 관계, 즉 상호적 마음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의 탈북자가 연루된 접촉지대에서 탈북자는 주로 피고용인으로 등장한다. 남한사람 고용인과 탈북자 피고용인 관계 또는 남한사람 판매자와 탈북자 구매자의 관계는 자원분포의 비대칭성 때문에 야기되는 전형적 사회관계다. 반면 북한지역에서 형성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과 공여자가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사회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직적 관계가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란 공간이 주는 제약과 공간 자체가 북한에 위치하면서 북한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회만들기를 위한 '마음통합' 연구

마음적 전환은 이성, 감정, 의지, 정동 등의 복합체로서의 마음을 주목하여, 지금까지 이성 중심의 논의에 함몰되어 있던 사회통합의 영역을 비이성을 포함한 것으로 확장시키면서도 동시에 주체를 구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서의 '마음'의 수행성에 주목하는 것을 뜻한다. 즉 행위자들의 협력과 갈등이란 행동/무행동을 생산하는 사회적 현상의 근원으로서 마음을 천착하려 한다. 마음적 전환은, 사회과학계에서 토대와 상부구조란 건축학적 은유를 넘어서려 했던 언어적 전환, 이성보다는 감성에 주목하고자 했던 감정적 전환, 정치경제학에서 문화로의 전회를 담지한 문화적 전환을, 유물론과 관념론의 접점에 있는 마음개념을 매개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마음적 전환의 시각에서 소통과 평화와 화해의 관계 및 체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이론과 전략을(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며,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통합의 이론과 전략을 한반도적 맥락으로 연장한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통합이론과 일국적 사회통합이론의 접목이 필요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통합적 실천의 소산인 남북한 주민의 마음체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다. 한반도 마음통합은 한반도 사회만들기와 동의어다.

기획기사

분단 가족사 다룬 ‘그 날’, 외할아버지 고통 담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서 8월까지 매일 한 차례 열려*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최근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영화계도 들썩이고 있다. 분단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는 (사)DMZ 국제다큐영화제와 지난 10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DMZ국제다큐영화제 기획 상영회’를 가졌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위치한 ‘DMZ’와 ‘다큐멘터리가 만난다’는 의미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참신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평화와 소통,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영화 한마당으로, 시민들에게 분단 문제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최 측은 오는 8월까지 매일 한 차례 총 6작품을 선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북한대학원대학교 SSK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7년 째 남북한마음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영회를 통해 재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남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영회에는 정수는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그 날(One Warm Spring Day)’이 관객을 반겼다. 작품은 전쟁포로로 남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외할아버지의 역사와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떠나는 손녀(정수는 감독)의 아픈 여정을 담았다.

분단의 아픔 간직한 ‘반공포로’



영화 ‘그 날’ 스틸 컷(사진=DMZ국제다큐영화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내 대표 유적지다. 전쟁 기간 운영된 이 수용소에는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이 생활했다. 그 인원만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10대 때 전쟁터에 끌려가 이 수용소에서 지냈다. 지금은 흰 백발이 날리는 노인이 됐지만, 그만큼 한민족의 서슬 퍼런 역사를 웅변하는 산 증인으로 살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연상케 하는 어르신 무리가 애국가를 부르거나 혈서로 전쟁 참전을 다짐한 장면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충분해 보였다. 반면 북한 인민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 어르신은 오랜 남한 생활로 기존의 생각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성당에서 세례를 받거나,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공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70여 년 간 분단이 고착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영화는 그러한 아픔을 간직한 개인들의 역사를 생생히 그렸다.

기획기사

영화의 포인트는 감독의 기나긴 여정을 통해 조금씩 밝혀지는 외할아버지의 흔적이다. 오랜 포로생활을 경험한 외할아버지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독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계속해서 질문한다. 증언에 따르면, 거제도 82수용소에서 생활한 외할아버지는 다른 포로들과 한 이불 속에서 지내는 등 어느 포로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감독은 이 같은 인터뷰와 증언을 통해 외할아버지의 삶을 정리하는 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춘천과 해남, 임진각 등을 찾아 그늘처럼 처진 그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생애는 물론 포로들의 생활상, 통일에 대한 주변인의 생각들이 스크린에 드러났다.

가족사 다뤘지만 분단사이기도

영화 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다큐 영화를 통해 분단의 아픔에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그러면서 “반공포로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마주한 가족의 삶이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수는 감독은 “제작 기간 동

안 역사 공부는 물론 포로 출신 할아버지들을 직접 만나는 등 끊임없이 발품을 팔았다”며 “할아버지들을 만나는 일이 실제 외할아버지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 영화는 가족사를 다뤘지만 남북문제와 통일, 이산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다”라며 “기회가 되면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통해 북쪽 친척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 후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왼쪽)이 감상평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수는 감독.

* 본 기사는 3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연구성과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동독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정체성: 비판과 저항의 준거점으로서 이데올로기. 《북한연구학회보》 제 21권 제 2호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라는 데에 있다. 동독의 평화혁명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주의는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대표적인 동독의 비판적인 지식인이면서 반체제인사였던 루돌프 바로(Rudolf Bahro)는 동독사회를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과 비교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로 규정했다. 그는 동독사회에서 왜곡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독특한(sui generis) 생산양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80년

대 동독의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을 주도했던 지식인들과 Neues Forum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동독 사회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사회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로서의 동독 사회를 비판하는 저항이데올로기이면서 동시에 미래 동독사회가 나아가야 할 유토피아였다. 하지만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제시했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는 시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으며 독일은 통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연광석 (성공회대학교)

남한 신식민/분단 체제와 ‘민주수업’의 불가능성. 《문화연구》 제 5권 제 2호 (2017)

이 글은 남한 사회를 ‘신식민/분단 체제’로 개념화하여, 2016~2017년 남한의 촛불 시위와 그 결과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성찰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남한 ‘신식민/분단’체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자본주의적 발전,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성립, 국제법적 국가성의 획득 등의 ‘가상성’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는 정치적 ‘진보/보수’ 구도의 탈역사적 형성과 종말론적 권리담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체제’의 성립을 추동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식민주의적 역사성을 계승하고자 했던 ‘당’운동은 합법적 정치 영역에서 지속적

으로 축출되었고,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정성은 인식론적으로 배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만의 사상가 진영진(1937~2016)이 문학적으로 제시한 ‘역사의 정합’과 ‘사랑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설정을 참조하여 ‘현대’적인 당-인민 관계를 넘어선 정치양식의 창안으로서 ‘민중민족론’의 복원을 사상적 과제로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단 동정

■ 4월 1일자로 본 연구사업단 연구진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연구보조원 김민지, 연구교수 최순미, 연광석 박사의 임용이 종료되고, 신임 연구교수로 채석진, 엄현숙 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 3월 23일(금) SSK남북한마음통합 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경북대학교의 최정규 교수를 초청하여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조의 가능성: 실험적 접근”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정규 교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일환인 ‘공공재 게임’ 장면을 다룬 일련의 실험 연구를 상세히 소개하고, 청중들과 함께 향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게임이론의 적용과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MARCH / MONDAY

26

國立交通大學 人社 2 館

北韓研究的 歷史、現況以及 南北韓心意整合研究

北韓研究大學南北韓心意整合研究中心與
交通大學社會與文化研究所學術交流工作坊

上午場 (10:00-12:00) + + +

【年輕學者座談】/ 人社二館106教室

北韓研究大學：
 羅光錫 (北韓研究大學研究教授)
 朴世鈞 (北韓研究大學研究教授)
 李賢洙 (北韓研究大學研究教授)
 交通大學社會與文化所 畢業博士：
 陳國志 (東海大學兼任講師)
 Filip Kraus (中研院 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博士後研究員)
 楊成錄 (高麗師範大學韓語領域研究所兼任助理教授)

主持人：
 嚴慧華 (交通大學文化研究所中心 博士後研究員)

下午場 (14:00-17:00) + + +

【北韓研究的歷史、現況以及南北韓心意整合研究】
/ 人社二館204教室

- 李宇錫 (北韓研究大學教授, 現職)
北韓研究大學和南韓北韓研究所聯合
- 羅文秀 (北韓研究大學教授)
「邊境地帶」與「城」工業化的經驗之社會經濟內涵
- 羅祥敏 (北韓研究大學教授)
北韓研究的歷史與現況與心意整合研究國際會議
- 金聖敏 (北韓研究大學教授)
Mobile North Korean Woman and Their Desant Motherhood:
Focusing on the Sino-North Korea Borderland

主持人：
 劉順華 (交通大學社會與文化研究所教授/主任)



▲ 3월 26일(월), 대만 국립교통대학에서 본 연구사업단과 대만 국립교통대학 사회문화연구소(주임교수 劉紀蕙)의 학술 교류 워크숍과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본 연구사업단에서 진행해온 북한 연구의 경험을 공유하고, 권역적 분단 및 포스트/냉전적 맥락에서 남한과 대만 사이의 더욱 심화된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의 청년학자 좌담(“나의 연구역정 - 회고와 반성”)과 오후의 학술 워크숍(“북한연구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양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를 비롯한 사회/문화 연구에 있어서 양측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연구단 동정

■ 3월 16일(금), 30일(금) 본 연구사업단의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16일(금) 세미나에서는 박세진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문화인류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총 3회에 걸친 특강 중 첫 시간이었던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류학의 대상과 인류학 분야의 학문적 고유성,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사회인류학’이 분기되는 지점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30일(금) 세미나에서는 연구보조원 성다인(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의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ts Limits - Revealed through a Case Study of North Korea”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다인 연구보조원의 석사학위연구를 요약 발표한 이 시간에는 북핵문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핵비확산조약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핵비확산조약 자체의 제한점과 핵 문제에 있어서 서구적 관점 및 해석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실험과 실천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2018년 3월 - 8월 매월 1회 (3.10./4.21./5.19./6.30./7.28./8.25.)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주최 DMZ국제다큐영화제,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원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2018년 3월 - 8월 매월 1회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주최 DMZ국제다큐영화제,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원

3/10(토) 16:30 그 날 One Warm Spring Day 제일 정수은 감독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6/30(토) 14:00 황새바람 Yellow Wind 제일 최원준 감독 최유미 서울대학교 교수
4/21(토) 16:30 경계에서 꿈꾸는 집 Dream House by the Border 제일 김광호 감독 김정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7/28(토) 14:00 우리가족 Our Family 제일 김문희 감독 권광성 서울시 인문과학대학원 교수
5/19(토) 16:30 나는 선풍다 I Am Sun Ma 제일 최은미 감독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8/25(토) 14:00 남북미생 Two Species from Korea 제일 김정영 감독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3월 10일(토)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공동 주최) 1회 정기상영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그 날(One Warm Spring Day, 감독: 정수은)” 영화 상영과, 정수은 감독과 권금상(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박사가 참여한 GV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전면의 《분단 가족사 다룬 ‘그 날’, 외할아버지 고통 담았다》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 4/5(목)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센터의 공동학술회의(“환대의 마음: 공생과 통합의 문화정치학적 탐색”)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집단 간 공생 및 통합’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두 기관에서 처음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학문후속세대들의 발표로 이루어지는 오전 세션에서부터 양측 연구기관의 연구교수 및 공동연구원들의 발표로 구성되는 오후 세션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4/12(목) 오후 7시(장소: 정독도서관 1동 3층 시청각실), 서울시 정독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북촌인문학스터디에서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특강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강에서 김성경 교수는 “분단된 마음은 어떻게 다시 만날까?: 평창올림픽이 남긴 질문”이라는 주제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사유한 남북한 간 평화적 만남의 조건들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입니다.

**분단된 마음은
어떻게 다시 만날까?**



평창올림픽이 남긴 질문

■ 4/13(금) 오후 4시(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4월 정기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본 연구사업단에 신규 임용된 연구교수들의 연구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채석진 박사는 “잔혹한 희망: 불안정한 삶, 노동, 그리고 디지털미디어”를 주제로, 엄현숙 박사는 “학교교육에 나타난 사회적 영웅주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4/19(목) 오후 2시(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한 마음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주제로 언론 및 시민단체 연계 공동좌담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좌담회에서는 지난 2~3월에 걸쳐 이루어진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들의 인식과, 남북한 스포츠 및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4/20(금) 오후 4시 본 연구사업단 학문후속세대세미나가 실시됩니다. 4월 학문후속세대 세미나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연구사업단 박세진 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의 문화인류학 강의(2회차)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4/21(토) 오후 4시 30분, 본 연구사업단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다큐로 만나는 남북한: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들” 정기상영회(2회차)가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실시됩니다. 4월 정기상영회에서는 다큐멘터리 “경계에서 꿈꾸는 집(Dream House by the Border, 감독: 김량)”의 상영과, 김량 감독과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를 초청한 GV가 진행됩니다.

2018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계공동학술회의

환대의 마음: 공생과 통합의 문화정치학적 탐색

2018. 4. 5. 목, 10:00 - 17:30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5호

주최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후원 | 한국연구재단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식 / 최진우(한양대 평화연구소 소장) 축사 /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소장)

10:30-12:00 세션 I
발표 / “그난의 향교 이후 북한 이론 연구: 구술사 사례 분석” - 김민재(북한대학원대)
“세계시민주의 이론과 교육적 필요성” - 최승안(한양대)
“탈냉전기 글로벌 상성의 변주: 한국 대학생 유구권연수단의 사회주연 연 여행을 사례로” - 김지윤(한양대)

14:00-15:40 세션 II: 마음, 사회, 그리고 사회통합
발표 / “마음의 ‘사회학’의 관측스런음에 대하여” - 박세진(북한대학원대)
“남북한 통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이아연(북한대학원대)
“통일 이후 독일주민의 이주인에 대한 태도” - 양계민(한국장소년정책연구원)

15:50-17:30 세션 III: 한반도의 실천과 제도
발표 / “북한과 대중문화연구” - 김수현(한양대)
“이주민 학대지수의 지표체계 구성과 국가 간 비교” - 한종성(한양대)
“최근 나타난 문화외교와 문화역 관계의 구분, EU 사례를 중심으로” - 김사미(한양대)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역으로 우리 쪽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 다만 평창올림픽을 계기 삼아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간접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현 정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북이 판을 깨고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쪽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게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라며 “북-미 대화를 위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것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김정은, 비핵화 관련 어떤 발언 했느냐가 최대 관건” / 한겨레 2018.03.05.

이에 반해 북한은 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공동 코뮌িকে(성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당시 김정일 특사로 미국에 파견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채택된 이 코뮌িকে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담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양자 간 합의가 유효하게 지켜질 것인지를 확실히 검증받기 위해 장기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구갑우 교수는 분석했다.

구갑우, “미국의 협상 준비 부족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졌다” / 동아일보 2018.03.17.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면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돼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 대화 노력 과거와 달리 진정성 있을 것” / 한겨레 2018.03.18.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의 국회 비준을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간의 합의사항과 이번 회담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면, 독일 통일의 주춧돌이 됐던 ‘동서독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북 기본조약’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짚었다.

구갑우, “문 대통령, 남북·북미회담 순항 땀 ‘종전선언’ 추진 큰 그림” / 한겨레 2018.03.21.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이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민간교류 영역에서도 지속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조치들이 담보되기를 바라며, 어느 정권이고 이를 위한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화가 중요하며 법적 제반 조건에 대한 형성 및 여러 플로어시스템을 갖춰 사회문화교류 관련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남북당국 ‘지원·보장’ 공동선언 필요” / 통일신문 2018.03.29.

정권에서도 문화를 받아들이는 전략을 바꿨다는 설명도 있다. 한국이나 미국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우리가 북한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흐름에 너무 무심하다”라며 “지금은 핑클, 베이비복스가 공연했을 때와 다르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빨리,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음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의 평양공연이 무산된 것도 북한이 불편해하는 콘셉트라는 것. 이 교수는 “”싸이의 평양공연이 어려운 건 그의 노래가 전반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분위기라서 일 것”이라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레드벨벳보다는 조금 더 귀여움이 강조된 아이돌이 북한 관객에게 다가가기 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략)…”

이 교수는 ‘세대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에 탄생하고 200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이들과 기성세대와는 취향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의 취향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라며 “우리의 평양공연도 북한의 문화 기류를 읽어내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레드벨벳에 놀랄 거라고? 북한 걸그룹을 뭘로 보고…” / 오마이뉴스 2018.03.31.

칼럼

10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여성 혁명가들이 등장한 듯하다. 그동안 세상이 수십번도 더 바뀌었건만, 그들의 삶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표면적으로는 사회 곳곳에 여성의 약진이 확인되지만, 그 이면에는 힘과 권력을 앞세운 폭력이 일상이다. 동등한 인격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야만이 진보를 부르짖는 정치인,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다는 예술가, 부패한 재벌 총수, 그리고 일베에서 여성혐오를 일삼는 이들이 공유하는 정서라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계급, 이념, 영역 등을 뛰어넘어 작동하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며 뿌리 깊은지 증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차별적 권력은 단순히 몇몇을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부장제는 성과 젠더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누구도 몸과 마음에 배태된 가부장적 폭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지금의 ‘미투’ 운동은 단순히 몇몇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몸속 깊숙이 각인된 성차별적 습관과 야만성이 따리를 튼 의식 저편까지도 모조리 바꿔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성찰과 변혁의 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말할 수 없는 이들의 반란 / 한겨레 2018.03.07.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타자를 깊게 이해하기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김현식, 2007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저자 김현식 ‘교수님’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곳, 그러므로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134쪽)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다. 김 교수님은 북에서 조선로동당에 입당을 했고, “전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시키는 원종장(原種場)”(85쪽)이었던 평양사범대학(김형직 사범대학)에서 38년 동안 러시아어를 가르치시다, 1992년 한국으로 오셨다. 김 교수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적 표현에 따르면 김 교수님은 이른바 ‘탈북자’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매개로 북한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지식인이다. 400쪽이 넘는 이 책 속에는 남북을 거쳐 이제는 미국에서 자신의 이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운명적 유목민의 고뇌가 담겨 있다.

처음 이 책을 들었을 때, 김 교수님이 김일성 처가의 가정교사를 했다는 사실과 같은 선정적 내용을 부각시켰던 언론의 서평을 읽고자 했다. 그보다는 우리 안의 타자 가운데 한 명인 탈북 지식인의 개인사와 그 개인사에 용해되어 있는 우리와 우리 밖의 타자인 북에 대한 김 교수님의 생각을 액면 그대로 읽고 싶었다. 우리는 타자와 더불어 살기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 안의 타자들도 우리에게서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우리 안의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자를 우리의 잣대로만 이해하고, 그들을 성급하게 우리와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동일화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김 교수님의 책이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책을 덮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자존심과 인정투쟁이었다. “내가, 평양에서 대학교수를 했다는 사람이”(354쪽)다. 라는 자존심, “평생 동안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로서의 자존심”(418쪽)이 책에 절절히 배어 있었다. 이 책은 김 교수님의 인정투쟁을 위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타자의 자긍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김 교수님이 남에 받을 dign는 그 순간부터 발견된다. 김 교수님이 러시아에서 남으로 오기 전에 접촉한 한국의 정보요원은, “서울에 가시면 교수님은 당연히 남한 최고의 대학에서 일하시게 될 것”(16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 교수님이 남에서 들은 첫 마디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34쪽)였다. 김 교수님의 자조처럼, 자신은 평양사범대학 교수가 아니라 “그저 수많은 ‘탈북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35쪽)을 뿐이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김 교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매일같이 내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넘어왔는가”(39쪽). 피어린 자책의 목소리도 들린다. “내가 가족들에게, 또 보증을 서 준 제자들에게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나는 미쳤

었다. 나는 미치고 만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잖은가. 후회가 통한이 되어 가슴을 쑥셔 댔다”(33쪽).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김 교수님은 자신의 과거에서 또 다른 자기를 불러낸다. 1946년 봄 함흥 영생중학교 학생으로 소련군과 김일성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기억,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당부 등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끔 한다. 개인사가 재해석되면서, 김 교수님의 우연한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북한을 개방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은 이제 하나의 사명이 된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념의 포로인 셈이다.

책을 읽고 난 후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의 화두는, 북한적 사회구성의 성격 및 이 사회구성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였다. 김 교수님은 북을 타자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북 내부의 시선으로 북을 바라보려 하고 있다. 탈북자의 정체성이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책 곳곳에서 북에 대한 애증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조국과 수령을 배신한 민족 반역자’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의 나를 키워준 북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327쪽). 그럼에도 북에 대한 비판은 단호하다. 수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토록 감동을 했던 김 교수님에게 북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 부의 세습, 학벌 세습”(119쪽)이 이루어지는 “계급과 차별의 땅”(276쪽)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땅에는, “원천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계급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님은 북의 긍정적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남쪽과의 비교를 통해 얻은 새로운 평가일 것이다. 김 교수님이 제시하는 사례가 김일성의 교육정책, 육아정책, 토지정책 등등이다. 김 교수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11년이나 되는 보통 무료 의무교육은 정말 훌륭한 제도이다. 남에 와 보니 돈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웠다”(245-6쪽). “김일성은 150일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제를 두어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게다가 국가가 운영하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했다”(256쪽). “김일성이 가장 잘한 일은 토지를 공유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는 식의 데모가 벌어진다. 조금이라도 나쁜 것은 우리 동네에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의 데모 때문에 국가시책이 이리저리로 마구 흔들리는 것을 보면 역시 토지를 공유화한 김일성이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246쪽).

칼럼 연재

김 교수님은 김일성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도 책의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탈북자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 듯 하다. 김 교수님은 더 나아가 보다 담대한 가설을 세워보기도 한다. “만일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좋은 보았더라도 끝끝내 사회주의를 고집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시장경제가 인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줄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246 쪽)고 답하고 있다. 김일성은 적어도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김정일은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강냉이 밥에 채소국도 못 먹여 인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434-435쪽)다는 평가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구별짓기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문제제기는 남한을 향한 것이다. “이토록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사회인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김 교수님은, 주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처럼, “대학입학시험의 문제가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332쪽)아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해 볼만하다. 6개월 전에 “칠판에 판서할 내용, 판서할 위치, 강의에 쓸 교편물,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떤 판서를 지울 것인가도 일일이 밝혀 놓”(326쪽)아야 하는 강의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북한과 달리 강의안조차 없이 강의에 임하는 남한의 교수들에 대한 질타도 보인다. 남한의 교육의 기본이 “남보다 나를 위하여”이고, 북한의 교육의 기본이 “나보다 남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는 대목에선 사범대학 교수의 통찰력을 느끼게 된다.

남북에서의 경험을 아우르면서 김 교수님은 남북통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려 한다. 언어학자로서 김 교수님은 철조망보다 말이 먼저 통일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북 통일말 사전>>의 편찬작업에 많은 정열을 쏟기도 했다. 그가 바라는 통일은 “지난날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존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427) 통일이다. 이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남한의 대북정책의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김 교수는 생각하고 있다. 책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에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에서 김 교수는 개방하라, 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의학과 농업 그리고 영어를 통한 인재 교육에 한정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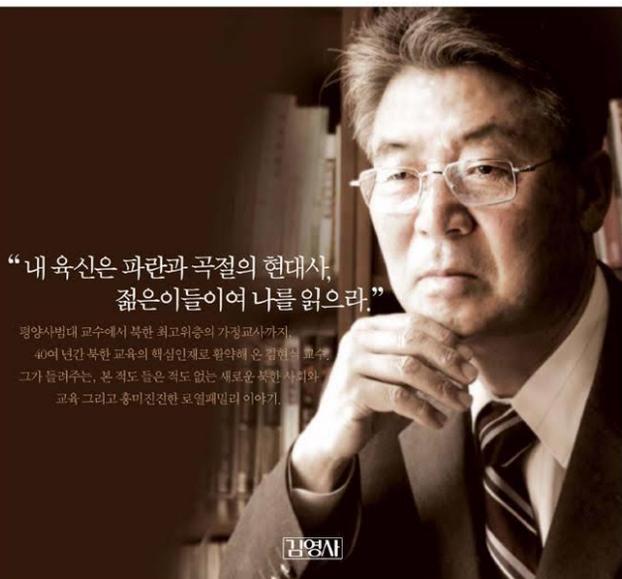
이 책은 남한의 땅에서 차별을 느끼면서 “차라리 중국 조선족이라 말하고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게 서울의 현실”(418쪽)이라고 생각하는, ‘3등 국민’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많은 부분 가슴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나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이야기나 김 교수님이 탈북한 이후에 북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자신감 있는 묘사 등이 언론의 평가와는 달리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의 시각을 결여한 과도한 북한 특수성론도 이 책의 약점일 수 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안의 타자가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깊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

에일대학에서 보내온 평양 교수의 편지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김현식 지음



“내 육신은 파란과 곡절의 현대사,
젊은이들이여 나를 읽으라.”

평양사범대 교수에서 북한 최고위층의 가정교사까지,
40여 년간 북한 교육의 핵심인재로 활약해 온 김현식의 삶과
그가 들려주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북한 사회와
교육 그리고 흥미진진한 로열캐피탈 이야기.

김영사